

신승우 작사
김동국 작곡

$\text{♩} = 82$

1.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는 정오의 타는 별마시며
2.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는 인생의 무거운 짐지고

목마름에우는 빈 - 물동이이고 끝 - 없는 미로를 갔소
목마름에지쳐해매이던 그때에 연 - 원한 안식 찾았소

채워도 족함이 없고 욕망의 그늘진 삶에
죄의 짐 무거워지고 소망이 사라져갈 때

영혼을 스쳐갔던 다섯 남편과 또 하나의 남편도 사랑은 아니었소
기쁨을 알게하신 영생의 주님 그 분만이 나의 참사랑이 되었다오

마셔도 - 갈 한 목마름에 - 무너졌던 삶네
내 영혼 - 속 에 생수의 강 - 넘쳐 흐르네

우물가로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를 만난 후

이제는 방황을 마치고 영원 의 길을 갑니다
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오리다